



네일상 호광

2022 SUMMER vol.24

Hot 人

기획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황승욱 대장의 활동 이야기

안전을 부탁해

다시 기지개를 펴는 생존수영

환경을 부탁해

쓰레기로 오염된 부산 바다를
숨 쉬게 만드는 부산지부의 노력



한국해양구조협회



주식회사 **코르웰**
KORWELL CORPORATION

東一造船株式會社
DONGIL SHIPYARD CO., LTD.

(주)코마린기자재
KOMARINE MATERIALS CO., LTD.

會長 金 成 泰

船舶修理 • 船舶新造 • 海上貨物運送 • 海運代理店 • 船舶給油 • 水産物輸出入
Shiprepairing Shipbuilding Marine Transportation Shipping Agent Bunker Supply Marine Products Export/Import

TEL.(051)200-1111 / FAX. (051)200-1188 / E-mail. kwagent@korwell.co.kr / <http://www.korwell.co.kr>
TEL.(051)200-1211 / FAX. (051)200-1288 / E-mail. dongil@disyard.co.kr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А KOREA MAGAZINE

2022 07
제24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2년 7월 13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해관 최수남(海觀 崔守南)선생의 작품으로 '넙실대는 파도를 역동적으로 형상화 하였으며 바다를 통해 치유 받는 마음'을 담았다.

CONTENTS

	Special Theme	
04	기고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종욱
	MARSА News	
06	본부 뉴스	1) 부산·포항 서프구조대 발대식
07		2)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 참가
08		3) 민간해양구조대원 관리자 양성과정 교육
09		4) 한국해양구조협회 본회 임직원, 드론 국가자격증 도전
10	지부·지역대 뉴스	1) 울주구조대, 「2022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11		2) 전북북부지부, 「제7회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행사」 개최
12		3) 울산지부 구촌근 협회장,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13		4) 경기충남북부지부, 제27회 바다의 날 맞아 해양정화활동
14		5) 경북특수구조대, 포항해양경찰과 함께 해양정화활동 및 어민들의 민원 해결에 나서
15		6) 전남동부지부 사무실 이전, 현판식 개최
16		7) 강원북부지부, 안전기원제 개최
17		8) 전남서부지부, 삼학구난대 발대식
18		9) 충청북부지부 서산구조대, 아산충무병원과 의료 협약식
19		10) 전남동부특수구조대, 민·관 합동 훈련 및 수중정화활동
20		11) 울산지부, 합동 개해제 및 수중정화활동
21		12) 부산지부, 부산해양경찰서로부터 고속구조정 무상인수
22		13) 전북남부지부,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23		14) 전국 구조·구난소식
	MARSА Story	
26	Hot 人	기획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황승욱 대장의 활동 이야기
30	안전을 부탁海	다시 기지개를 펴는 생존수영
33	환경을 부탁海	한 해 평균 수중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약 900톤, 쓰레기로 오염된 부산 바다를 숨 쉬게 만드는 부산지부의 노력
	MARSА Info	
37	해양경찰소식	1)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제정, 안전한 레저환경 기반 마련
39		2) 해양경찰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체계 도입하여 해상 화학사고에 대응한다!
40		3) 중국 불법어구 61톤 강제 철거 중
41		4) 해양경찰청, '어선 방제보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42	국내뉴스	1) 한·중, 불법 어업공동 단속체계 공고화
43		2) 7~8월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대비 필요
44		3) 개정 「항로표지법령」 7월 5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45		4) 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합시다
	MARSА Notice	
46	협회교육안내	1) 2022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47		2) 2022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48		3) 2022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49		4) 2022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50	협회후원안내	

기고문

한국해양구조협회 기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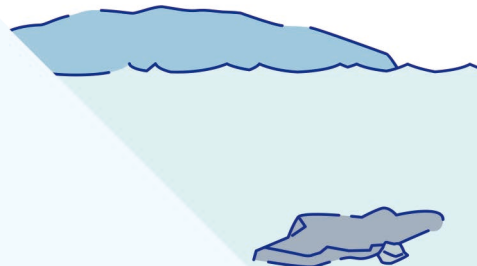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 중 욱

우리나라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의 특징으로 고대부터 바다를 이용해 안팎을 연결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군산해역의 고군산군도, 신안군 바다의 수중유물 발견은 고려시대부터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고, 멀리 일본까지 무역하는 중요한 가두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국민들은 이러한 소중한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필자는 바다를 생각하면 ‘동전의 양면’이 생각한다. 특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부임 후 지난 7개월 서해바다를 겪어보니, 더욱 그러하다. 서해바다는 풍력발전소, 풍부한 양식장과 어장, 제주로 가는 항로, 중국과의 교역 등 많은 것을 주면서도, 큰 해양사고로 우리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또 그만큼 가져간다. 한없이 두려워지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연간 3,500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중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해양사고는 1,000척 내외로 전체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두 가지를 언급하겠다.

첫 째로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특성을 뽑을 수 있다. 이러한 지형특성은 수색구조에 어려움이기도 하다. 전국 71.8% 해당되는 2,277개 유·무인 섬이 분포되어 있으며, 신속 정확한 위치확인인 상황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



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식적인 섬이름을 두고 지역방언으로 불리우는 경우가 많아 위치파악을 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올해 3월에 섬과 주변지형물 방언 현황을 파악하여, 각 파출소별로 자체 해도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실제 공식명칭과 함께 지역민 방언으로 불리어지는 섬은 무려 377개소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조석간만의 차이다.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최대 약 4~5m 정도로, 이로 인해 갯골이 산재되어 있고, 와류가 형성되며, 유속이 빠른 특성이 나타난다. 해양에서의 사고도 많지만, 정박상태에서 선수턱걸이, 차량 추락, 연안체험활동 고립 등의 사고도 많다. 특히, 물때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루질 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다. 사고예방을 위해 지역특성화 훈련을 실시하고, 대조기때 집중 순찰활동, 드론스피커 활용 방송, 안전시설물 보강 등 대책을 강구하지만 부족한게 사실이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넓히고 있다. 올해 4월 민간해양구조대 상황관리센터를 각 지방청에 1개소씩 개소하여 시범 운영 중으로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규제들은 애석하게도 송구한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그 희생은 누군가에게는 든직한 가장, 살가운 딸, 희망을 갖고 사는 젊은이, 푹뭉뭉 해맑은 어린아이들, 세월의 무게를 견디신 어르신들, 바로 나와 같이 살아가던 내 옆의 이웃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해양경찰이 모든 해양사고를 대응하기는 어렵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민간해양구조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전문 인력과 함께 민·관·군이 하나 되어 안전한 바다를 만들 것이며, 아울러 초등학교·중학교를 상대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정례화 하여 유형별 해양사고에 대한 대책과 자기보호 능력 및 해양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부산·포항 서프구조대 발대식

지난 7월 13일,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서 부산·포항 서프구조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이강덕 사무총장과 서프구조대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양경찰에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해양경찰서장 등 20명이, 외부에서는 해운대구의회 부의장, 이마트 영남지역 총괄 담당, 부산시청 해양수도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축하하였다.



▲서프구조대원들과 이강덕 사무총장, 윤병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송길수 이마트 영남지역 총괄 담당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해양경찰청과 (주)이마트가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이마트의 후원 아래 지난해 5월, 우리협회 강원북부지부 소속으로 ‘서프구조대’를 출범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강원북부지부 서프구조대는 발대 직후 갯마을 해수욕장에서 이안류에 떠밀려 표류하던 피서객 2명을 구조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33명의 인명을 구조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다.

이번에 출범한 부산과 포항의 서프구조대는 현 서핑 국가대표 선수도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의 송정, 대대포, 경북 포항의 월포, 화진 해수욕장에서 총 86명의 대원들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태 회장은 포항 최준우 대장과 부산 배병홍 대장에게 깃발을 전달하였으며 대장들은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각오를 다졌다. 서프구조대는 함정 접근이 힘든 갯바위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김성태 회장이 구조대 깃발을 흔들고 있다



▲ 인명 구조 시연 중인 서프구조대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 참가

해양경찰청과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유)리드케이웨어가 주관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전시회 「2022 국제해양 안전대전」이 지난 6월 22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우리협회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이강덕 사무총장이 참석하였고,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 등 관계기관의 주요 내빈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개막을 축하하였다.



▲(왼쪽에서 네 번째) 김성태 회장이 국제해양안전대전 개막 축하 버튼식에 참여하고 있다.

전시회는 무인경비정, 헬기, 선박·방산용 엔진, 레이더 장비 등 해양·조선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또한, 참가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투자상담회 등 다양한 B2B 상담회와 해양·안전·조선 산업과 관련된 컨퍼런스 및 세미나도 동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협회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서울지부 소속 전문강사들이 직접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구조용 파라코드 매듭묶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행사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협회부스에 방문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 김철재 마포구조대장은 “코로나 이후,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며 “앞으로 코로나 이전처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파라코드 매듭묶기 체험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협회의 안전체험관

민간해양구조대원 관리자 양성과정 교육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3일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민간해양구조대 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전국에서 22명의 협회장 및 사무국장 등이 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하였다.



▲ 단체 기념사진

이번 교육은 구조대원들을 대표하여 관리자들의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리더의 역할은 물론 실제 해양구조 기술 등을 교육하여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은 ▲마인드업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구조실습장 견학 ▲재난대응실습 ▲리더십 역량강화 ▲정책설명 ▲민간협력 고도화 ▲선박 기울기 체험 ▲농연 훈련장 실습 ▲해양 리더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 이튿날에는 김성태 회장과 이강덕 사무총장이 직접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외국의 민간해양구조세력에 대한 사례와 유사 기관의 조직 설립 및 운영 사례, 협회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태 회장은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와 구조활동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중요한 책무이기에 선진 기법을 익혀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체득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해양구조에 있어 튼튼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더 나아가는 우리가 벤치마킹하였던 해양선진국의 시스템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본회 임직원, 드론 국가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도전

지난 6월 15일, 우리협회 본회 임직원들은 ㈜경기항공과 함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종 자격시험에 도전하여 전원 최종 합격하였다.

드론 교육에는 이강덕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구조구난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총 4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였다.

최근 연안 해역에서 구조세력 접근이 어려운 저수심, 암초 지대 등 구조 사각지대에서 수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협회에서도 전북북부지부, 울산지부, 충청북부지부 등 드론구조대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각 지부의 구조대 내에서도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어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해양정화활동, 코로나 방역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본회에서도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드론 활성화에 따라, 차후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3월부터 항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중량에 따라 자격증이 세분화되었고 비행을 하려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드론 국가자격증은 1~4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종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실기 비행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모든 코스를 실격하지 않고 비행해야 하며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1종을 취득한 4명의 임직원들은 전문교육기관 설립과 인재양성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지도조종사 교관 자격증 취득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 (왼쪽부터)강동 경영지원 본부장, 이강덕 사무총장, 고동춘 구조구난팀장, 최수근 구조구난 본부장

울주구조대, 「2022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에 서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해양정화활동과 해양방제교육도 함께 진행...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가 후원하는 「2022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가 지난 6월 17일부터 3일간,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행사기간 동안 울산지부 울주구조대는 응급처치 체험 부스를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체험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직접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배우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같은 날, 울주구조대는 진하항에 모여 어민들과 함께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울주구조대원과 어민들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이 모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울주구조대 사무실에서는 대원들의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제교육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이후, 울주구조대는 지난 2년간 멈추었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바다안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바다봉사 활동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2022 간절곶 특산물대축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 중인 울주구조대



▲ 수중정화활동 중인 울주구조대



▲ 해양오염방제 교육 중인 울주구조대



전북북부지부, 「제7회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행사」 개최

지난 6월 4일, 전북북부지부는 은파호수공원에서 군산해양경찰서와 함께 「제7회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



▲ 수상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슬라이드를 이용한 선박탈출·구명뗏목·안전장비체험



▲ 해양경찰 관현악단

이번 행사는 전북북부지부와 군산해양경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수청 등 18개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행사는 해양을 포함한 수상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슬라이드를 이용한 선박 탈출 체험 ▲구명뗏목 체험 ▲안전장비 체험 등 수상사고에 대비한 생존법을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장으로 기획했으며, ▲수상안전 그림그리기 대회 ▲해양경찰 제복 포토존 ▲해상특수기동대 장비착용 ▲해양환경 사진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하였다.

이어 은파호수공원 한편에서는 최근 수색구조활동에 많은 활용도를 보이는 드론과 고속단정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와 해양경찰 헬기의 항공수색 상황을 시연 하였고 식전 행사로 해양경찰 관현악단에서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래퍼 비와이가 등장하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명실상부 군산지역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행사안전요원에 나선 전북북부지부 회원들

울산지부 구춘근 협회장,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지난 5월 30일,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울산지부 구춘근 협회장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 (왼쪽부터)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구춘근 울산지부 협회장

이날은 정봉훈 청장이 울산해양경찰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어 근무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로, 현장에서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해양경찰과 바다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민간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춘근 협회장은 지난 3월, 울산지부 협회장으로 새롭게 역임하며 지부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울산지역의 해양구조 및 해양환경정화 활동에도 단시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는 등 바다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봉훈 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충남북부지부, 제27회 바다의 날 맞아 해양정화활동

지난 5월 26일, 경기충남북부지부는 화성시 궁평항에서 평택해양경찰과 함께 '제27회 바다의 날'을 맞아 민·관 합동 수중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 배금란 협회장과 서정원 서장 그리고 관계자들이 수중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건져올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배금란 협회장을 비롯한 경기충남북부지부 지역대와 평택해양경찰서 서정원 서장, 평택해경, 평택해수청,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경기남부수협, 해양자율방재단,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방제자원봉사자 등 110여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2.5톤을 수거하였다.

특히, 이번활동에는 경기충남북부지부의 드론수색대원들이 수중쓰레기를 사전에 탐색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특수구조대원들이 수중에서 쓰레기를 직접 건져 올리는 등 각 개인의 기량을 발휘하며 해양정화활동을 하였다.

경기충남북부지부 배금란 협회장은 “동참해주셨던 모든 대원들이 있기에 오늘도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경북특수구조대, 포항해양경찰과 함께 해양정화활동 및 어민들의 민원 해결에 나서

지난 5월 24일, 경북특수구조대 황승욱대장과 대원들은 포항해양경찰과 함께 마산리마을회관 항포구를 찾아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 경북특수구조대와 포항해양경찰이 해양정화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제27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것으로 방파제 주변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폐어구 등을 수거하면서 해안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날은 포항해경과 함께 생업 등으로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해양종사자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봉사 서비스 및 법률상담' 등에 함께 참여하여 직접 민원인들의 법률상담, 불편함 등을 경청하고 조언하는 시간도 함께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연안정화활동 중인 대원들



전남동부지부 사무실 이전, 현판식 개최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5월 20일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현판식 현장

이날 행사에는 전남동부지부 조병중 협회장을 비롯하여 구조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하였고 여수해경에서는 하만식 여수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남동부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새롭게 이전된 사무실은 여수해양경찰서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발생 시, 즉시 대원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여수해경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중 협회장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해양안전예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강원북부지부, 안전기원제 개최



▶
바다안전을 기원하고 있는
강원북부지부 대원들

지난 5월 19일, 강원북부지부는 속초 장사항 일원에서 한해 바다 봉사를 위해 대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혁 강원북부지부 협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역대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양수 국회의원, 속초해양경찰서장, 속초수협장, 속초시도의원이 참석하여 바다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바다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강원북부지부 한상명 대원이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강민원·안동섭 대원이 강원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강석주 대원이 한국해양구조협회장 표창장을 차례로 수여받아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혁 협회장은 “해양구조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 한해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술선수범하여 바다봉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전남서부지부, 삼학구난대 발대식

전남서부지부는 지난 5월 18일(수), 목포시 삼학로에서 삼학구난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왼쪽부터)장재구 협회장과 이란수 삼학구난대장이 임명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구조대 깃발을 흔들고 있는 이란수 삼학구난대장

이 행사에는 전남서부지부 장재구 협회장과 지부 소속 대장 및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에서는 목포해양경찰서장, 경비구조과장, 서산파출소장, 목포수협조합장 등이 참석하여 삼학구난대 발대식을 축하하였다.

삼학구난대 초대대장에 임명된 이란수 대장은 전남 서해청 국민방제대 회장, 목포시 삼학도 어촌계장 활동을 하는 등 이미 다녀간 바다봉사활동에 헌신해오며 바다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란수 대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원들과 함께 바다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각오를 다짐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목포수협재단은 삼학구난대 사무소에 공기청정기 2대를 전달하여 삼학구난대 발대식을 축하하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충청북부지부 서산구조대, 아산충무병원과 의료 협약식



▲ 업무 협약식 체결현장

서산구조대(대장 김문환)는 지난 5월 18일 서산구조대 사무실에서 아산충무병원(이사장 이지혜)과 '의료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환 서산구조대장을 비롯한 장웅 아산 충무병원 종합검진센터 팀장, 태안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기관은 지역 내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고,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바다 봉사자들을 위해 회원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입원진료비 중 별도의 감액 기준에 따라 할인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문환 서산구조대장은 “이번 의료협약식을 통해 서산구조대 회원들이 건강과 질병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바다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파수군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전남동부특수구조대, 민·관 합동 훈련 및 수중정화활동

지난 5월 15일, 전남동부특수구조대는 여수해양경찰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민·관 합동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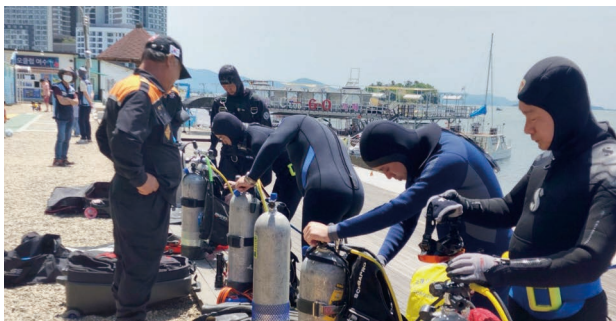


▶ 훈련 후 전남동부지부 대원들과 여수해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과 민·관의 효율적인 구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였다.

훈련은 인명구조용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과 함께 익수자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부력물품을 전달하고 연안구조정과 민간 수상오토바이 등이 동원될 수 있도록 민·관 구조대응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훈련에 이어 전남동부특수구조대와 여수해양경찰은 여수 웅천어촌계인근 및 웅천해수욕장에서 수중수변정화활동도 실시하였다. 직접 수중에서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도 함께 수거하면서 바다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잠수 준비 중인 전남동부특수구조대



▲ 수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전남동부지부 회원들

울산지부, 합동 개해제 및 수중정화활동

지난 5월 14일, 울산지부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민·관 합동 개해제 및 수중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 수중정화활동을 위해 물속에 뛰어드는 잠수대원

이날 활동에는 울산지부 구촌근 협회장을 비롯하여 울산해양경찰 등 총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수중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수중에 오랜 시간 방치된 폐어구 및 페타이어 등 총 5톤 가량의 수중 폐기물을 수거하였다.

직접 대원들과 해양정화활동을 펼친 구촌근 협회장은 “깨끗한 해양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유산이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며 “바다를 찾는 시민들은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부산지부, 부산해양경찰서로부터 고속구조정 무상인

부산지부는 지난 4월 21일, 부산해양경찰서로부터 고속구조정 2척을 무상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부산지부 창립 후 수회에 걸쳐 인명구조, 조난선구조, 침몰선박구조, 수색활동 등 해상사고 현장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부산지부는 전용 구조선이 없어 신속한 현장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부산해양경찰과 ‘해양경찰 장비 무상양여’를 위한 첫 번째 업무 협의가 진행되었다. 약 1년간 추진한 결과 조달청 물품관리 시스템 무상양여 행정절차 등을 거쳐 무상양여 등록 및 인증서를 발급하고 최종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얻어 총 2척의 고속구조정을 인수하였다.

이번에 인수한 고속구조정은 2008년에 제작된 것으로 최대속력이 40노트, 승선 가능 인원은 5명이며, 단가는 2억 2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된 2척의 고속구조정은 현재 선박등록과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며 현장 출동이 즉시 가능하고 매일 해양순찰을 돌고 있는 부산지부 남항구조대와 동부산구조대에서 운용 및 관리를 책임진다.

해당 구조정은 인명구조, 수색활동, 해상순찰, 수중정화활동, 교육 및 훈련에만 사용 가능하며 항포구 계류시 일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항 시 반드시 운항일지를 기록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소홀함 없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박영철 사무국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구조정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신속한 구조체제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무상양도에 대한 결정을 해준 해양경찰에게도 감사하다. 앞으로 구조정을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해양경찰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된 고속구조정

전북남부지부,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전북남부지부는 지난 4월 2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한 '민·관·군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였다.



▲ 어선 화재 현장을 가정한 구조훈련 중인 해양경찰과 전북남부지부

이번훈련은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전북남부지부를 비롯하여 부안해양경찰, 군산희전익항공대, 부안군청, 고창군청, 부안소방서, 해안감시기동대대 등이 참여했으며, 낚시어선과 양식장관리선 충돌사고로 인한 화재·침수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였다.

10명의 선원과 승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낚시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고속으로 이동하던 중 길은 농무로 인근에 있던 양식장관리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뒤, 잇따라 화재와 침수사고가 발생해 승선원을 구조하기 위한 훈련을 실전과 같이 시연하였다. 훈련에는 전북남부지부 대원의 선박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교 협회장은 “기관 및 단체간에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며, 대원들의 개인역량 강화에도 소홀함 없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전국 구조·구난소식

| 완도구조대, '완도 실종 일가족 사건' 수색작업에 나서

지난 6월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도 바닷속에서 인양된 실종 초등학교 조양과 가족의 승용차에 시신 3구가 발견되었다.

대한민국을 연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종된 초등학교 조양과 가족이 끝끝내 숨진 채 발견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였다.

광주경찰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완도구조대는 지난 6월 28일 5명의 구조대원이 구조대에서 보유한 장보고 구조선을 타고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날인 29일 경찰이 직접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차량 내 시신 3구를 확인하면서 수색은 종료되었다. 광주경찰이 차량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완도구조대는 이날도 현장 지원에 나서며 사고현장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완도구조대원들이 크레인으로 차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 경기충남북부지부, 궁평항 윈드서핑 실종자 수색작업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50대 남성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의 일행은 윈드서핑 중이던 A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요청을 받은 경기충남북부지부 소속 대원들도 현장에 출동하여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경기충남북부지부에서는 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민간자율선을 투입하였고 10여명이 현장에 나가 수색하여 2시간 30분만에 A씨를 발견하였다. 중태에 빠진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였다.



▲ 사고현장

| 마산구조대, 마산 앞바다 침몰선박 인양

경남동부지부 마산구조대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경 마산 앞바다에서 다산호(1.45톤)가 침몰하고 있다는 연락을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로부터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고 있는 마산구조대원과 해경

현장에 출동한 마산구조대는 25톤 크레인을 동원하였으며 작업이 가능한 배와 잠수대원들을 투입하여 배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했다. 도착 즉시 작업을 진행한 마산구조대는 선박 인양까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진 마산구조대장은 “마산구조대원들과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현장 주변 정리와 이동식 양수기까지 배치가 잘 되어 있어 순조롭게 인양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해경직원들과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달하였다.



| 장흥구조대, 회진항 침수 선박 인양

지난 6월 12일, 우리협회 장흥구조대는 오전 7시 30분경 선박 침수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는 황인수 대장을 비롯하여 8명의 대원들이 출동하였으며 장흥구조대는 기름 유출 등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수습하였다.

사고는 엔진 등의 기관고장으로 선박이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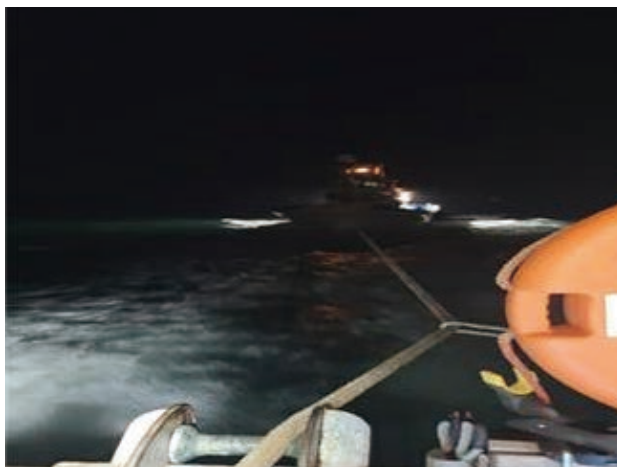
침수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잠수 중인 장흥구조대원 ▶



| 부산지부 남항구조대, 낚시어선 승객 10명 구조

지난 4월 21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 암남항에서 낚시객 10명을 태우고 출항한 낚시어선(9.77톤)이 북형제도 근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중 스크류에 페어망이 감겨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부산지부는 남항구조대 권성철 대원이 직접 보유 선박을 이끌고 사고해역으로 출동하였다.

권성철 대원은 사고해역에서 사고선박에 승선한 낚시객 10명을 구조한 후 선적지인 암남항까지 예인하였으며 스크류에 감긴 페어망 0.2톤을 제거하여 사고수습에 나섰다. 부산지부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전원 안전하게 귀가하였다.



▲ 사고선박을 예인중인 남항구조대



▲ 사고선박에서 제거한 그물

Hot 人

기획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황승욱 대장의 활동 이야기

| 인터뷰 _ 경북특수구조대장 황승욱 |



한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한 포항은 도시의 상징으로 갈매기를 시조로 삼고 있다. 갈매기는 해양풍물로 임해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높은 향토애를 의미한다. 항상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습성으로 부지런함과 근면성, 단합을 의미하고 진취적인 시민기상을 나타낸다. 또한, 망망한 바다와 거센파도 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원대한 이상을 표현하며 해양도시 포항의 대표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름다운 동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해양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경북특수구조대 황승욱 대장은 갈매기의 특징인 '부지런함', '진취적인', '강인한 의지' 등 시조의 의미 앞에 붙은 여러 수식어에 가장 부합하는 포항의 인물 중 하나이다. 해양안전을 위해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도전을 대원들과 함께하며 생각한 것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의 행동력에 경북특수구조대는 단시간에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포항의 대표 봉사단체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포항의 갈매기, 진짜 바다 사나이 황승욱 대장을 만나 그의 활약상을 들여다보았다.



서핑부터 요트팀 선수까지! 무궁무진한 도전

황승욱 대장의 바다활동 시작은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핑의 매력에 푹 빠졌던 그는 호주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핑의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를 중심으로 서핑 활동을 하며 전 세계를 누비기 시작했다.

한국에 돌아온 황 대장이 처음 한 일은 '포항서퍼클럽' 이라는 동호회 단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서핑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 서핑으로 훈련 중인 서프구조대

서핑을 즐길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에서의 해양사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포항서핑협회'를 직접 설립하여 초대회장으로 역임하게 된다. '포항서핑협회'는 유소년 선수육성, 해양정화활동, 서프 안전교육 등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대회유치 등의 활동을 하며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안전 라이센스도 없이 무분별하게 강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서핑업계에서 단계별 지도자 자격 과정을 개설하며 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경북특수구조대는 경북지부와 함께 서프 레스큐가 가능한 서프구조대 발대식을 준비 중에 있다.

황승욱 대장의 바다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섭렵했다고 할 정도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다. 26살 요트를 처음 시작한 황승욱 대장은 전국 레저 요식요트대회를 출전하여 요트팀 현역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사비로 구입한 요트로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가장 많이 항해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독도를 방문할 때마다 스쿠버다이빙, 레이싱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하여 독도를 가장 흥미롭고 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연출을 고민하며 SNS를 통해 대한민국 독도를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명성으로 현재 국립해양청소년센터와 제휴를 맺어 학생들과 함께 독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의 땅 독도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 학생들과 요트체험을 하고 있는 황승욱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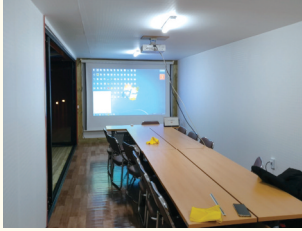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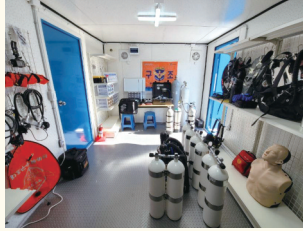


공언했던 말을 모두 지킨 황승욱 대장

황승욱 대장이 취임하던 날, 취임사를 통해 구조대가 훈련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겠다고 대원들 앞에서 당당히 공언하였다. 황 대장이 교육장 개설을 공언한 이유는 입회 초기 식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며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대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취임식 직후 곧바로 행동에 들어간 황승욱 대장은 **포항의 해양레포츠센터에 부지를 얻어 교육장을 신설하였다.**



▲ 훈련장 개관식날 황승욱 대장



▲ 훈련장 내부 모습

다이빙 룸, 장비 룸, 회의실을 갖춘 교육장은 경북특수구조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련과 교육을 논의하고 구조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대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장이 자리잡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 대원들이 대거 영입되었다. 이후에도 교육장은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대원들의 휴게시설까지 추가로 넓혀나가며 교육장의 모양새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 보유자를 2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던 황승욱 대장은 취임 직후 1기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무료로 개설하여 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5명이었던 기술 보유자들이 추가로 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현재 2기생들이 준비중에 있어, 공언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대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교육을 제공해 온 경북특수구조대의 헌신적 활동이 대외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해양 전문인력들이 구조대 입단을 위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입단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대원의 자격을 갖춘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느 취업 현장 못지않게 이력서, 자소서, 면접 등 개인이 보유한 능력과 봉사 의지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최종면접에 통과한 대원만이 입단 자격이 주어진다. 봉사활동에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인명과 직결된 특수한 영역인 만큼 자질과 능력, 그리고 책임감은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 또한, 어렵게 입단한 만큼 대원들 느끼는 자부심 역시 상당하다.



▲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 훈련 중인 경북특수구조대원들

조직의 전문화를 위해

황승욱 대장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포항청년회의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는 청년회에서 개인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아왔다. 이곳에서 사업기획, 결산방법, 조직구성 방법, 업무역량 개발 등 조직에서 행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배운 것들은 경북특수구조대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현재 경북특수구조대는 연초에 이사회를 개최할 때면 사업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가장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정하여 사전답사, 일정표, 실행계획 등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최종 예산을 집행한다. 또한, 발표할 자료나 대외적인 활동에도 PPT 활용도가 매우 높고, SNS를 통한 홍보에도 능숙하다.



대원들이 낸 아이디어 중 내수면 사고에 강한 제천119수상구조 전문의용소방대와 본격적으로 해상과 내수면으로 나눠 훈련을 위한 제휴를 맺은 것도 이 일환 중 하나이다. 해수면 구조활동에 뛰어난 경북특수구조대와 내수면 구조활동에 뛰어난 제천119수상구조 전문의용소방대가 전문지식을 교류하면서 여름에는 포항의 해수욕장과 항포구에서 심해를 중심으로 구조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겨울에는 제천에 있는 저수지에서 아이스 다이빙을 함께 한다. 이러한 기회로 단시간에 대원들의 역량은 급격히 발전하였다.

경북특수구조대의 전문성이 두드러진 대목은 여러 활동을 지켜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초창기 포항해경과 처음 합동훈련을 했을 때, 해경의 지휘 아래 익수자 역할만을 맡으며 수동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했다. 하지만 황승욱 대장은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한 경북특수구조대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실제 해양사고 현장에 직면했을 때 실종자 수색 시 그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기술력들을 더욱 찾아보고 충분히 습득한 후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또한, 훈련 직전에 장비 사용법과 구조법에 대한 사전회의를 구조대에서 주최하는 등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 구조대 역량과 전문성을 확인한 포항해경에서도 다음 훈련 때는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면 좋을지 사전에 공유하고 논의하며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훈련 횟수도 증가하고 서로의 경력과 실력 등이 신뢰를 기반으로 다져져 지금은 최고의 파트너로서 민·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현장에서도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 제천119수상구조 전문의용소방대와 함께한 아이스다이빙 훈련



▲ 포항해경과 함께한 민·관합동훈련

봉사도 추진력이 필요하다.

“스스로도 추진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반드시 결과물이 따라오는 것이 나에게서는 확실한 보상이 된다. 특히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좋으면 자부심이 생긴다. 이런 활동을 나혼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봉사활동에 더 큰 시너지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한 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황승욱 대장은 가는 발걸음 마다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 민간구조 활동에도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실제 수색현장에 투입 될 때면 구조대 자체 매뉴얼을 통해서 현장부스를 설치하여 장비를 구비하고 사전 브리핑을 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모으는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전문인력을 장시간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도 명확한 기준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며 주변 기관과 전문 단체들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어디까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그의 길들을 엿보며 대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또한, 황승욱 대장이 보여준 패기와 열정 못지않게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과 완숙함 그리고 굳건한 심지를 통해 앞으로 어떤 창의적인 기획력과 실행력으로 다음 행보를 이어갈지 기대된다.

안전을 부탁 海

다시 기지개를 펴는 생존수영

| 인터뷰 _ 한국해양구조협회 교육연구본부 최수근 본부장 |



▲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생존수영 교육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지역 간의 이동량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으며 뉴스에는 벌써부터 물놀이 안전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고 유형도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47명이 사망했으며 하천·계곡(98명)에서 해수욕장(27명)보다 3배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로는 50대 이상 48명, 10대 28명, 20대 26명, 40대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수영미숙 31%, 안전부주의 29%, 음주수영 17% 등이 있다.

이처럼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능력을 배울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 생존수영

생존수영이 교육현장에서 의무화가 된 배경에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고 이후,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의무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협회는 지난 2020년 11월에 생존수영 교육기관으로 정식 인증받았다.

해양사고 발생시 익수자들의 체온저하가 급격하게 진행된다. 공기 중 온도나 수중의 온도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일반 공기 중 체온손실 속도보다 수중에서의 체온손실 속도는 25배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같은 온도하에서 육상에서 추위로 손발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면 수중에서는 약 7분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해양사고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저체온증과 한랭 쇼크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차가운 수중에서 구조되기까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수영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일반수영은 다양한 영법을 통해 물에서 이동하는 것을 배운다면 생존수영은 수영에 익숙치 않은 사람도 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체온유지 자세 방법과 더불어 물에서 떠있는 방법, 필요시에 이동하는 방법,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 일반 수영과는 그 특징과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생존수영 교육은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교육임을 알 수 있다.



협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생존수영지도사



▲ 최수근 교육연구본부장이 남해수산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이론교육을 하고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이후 우리협회는 5월 25일,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격취득 교육은 아니지만 실제 바다에서 해양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직무상 안전에 필요하여 협회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협회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습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이론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어 지난 6월 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생존수영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개설하였다. 이번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대부분 인명구조요원 등 기본 자격증을 보유한 교육생들이었고 총 14명(1급 5명 2급9명)의 수강생들이 생존수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정부의 생존수영 교육지침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10시간 의무교육이다. 생존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무화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며, 교육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에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우리협회에서 양성한 생존수영지도사는 총 111명이다. 협회 설립 후,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재난안전지도사 등 안전교육에 수십만 명의 전문가를 배출한 협회는 생존수영지도사 역시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요원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강사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대거 생존수영지도사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다.

교육연구본부의 직원 중 한명은 지난 2019년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한창 부각 될 당시, 「생존수영 시 상지자세 변화에 따른 누워뜨기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에 대해 박사 학위 논문을 신기도 하였으며, 교육 자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왔다. 교육기관의 전문성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강생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협회의 최수근 교육연구본부장은 “국가적 재난대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자기생존을 위해 꼭 익혀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학교 교육이나 일상에서 간과하거나 무시함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형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존수영 뿐만 아니라 선박승선 시 필수 안전교육 내용,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Lift-Raft 작동방법 등), 탈출구 또는 비상대피로 확인, 구명조끼의 정확한 착용방법, 선박에서 퇴선방법 및 생존수영과 조난 시 조난신호 조작방법 등을 각 학생별 수준에 맞는 교육으로 일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실제 송정 바닷가에서 진행된 생존수영교육

환경을 부탁 海

한 해 평균 수중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약 900톤,



쓰레기로 오염된 부산 바다를 숨 쉬게 만드는 부산지부의 노력

| 인터뷰 _ 부산지부 박영철 사무국장 |

휴가철이 되면 해양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다에서 휴양을 보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이곳 부산을 찾는다. 해운대와 광안리의 야경이 더해져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모래사장에는 바다와 더불어 여름을 즐기기 위한 인파로 붐비고 있다. 또한, 바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스포츠 문화가 형성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젊은 세대들이 부산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광이라고 여겨졌던 바다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해양쓰레기들로 인해 해양 생물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곳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바다를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산지부를 들여다보며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아름다운 바다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봉사자들의 노력을 돌아보고자 한다.

한 회당, 1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한 부산지부

지난 6월 16일, 부산 영도구 봉래항에서는 바닷속에서 버려져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부산지부 소속 전문 잠수대원과 봉사대원 60여명이 집결하였다. 일주일 전부터 잠수대원 20명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수중에서 쓰레기가 적재된 위치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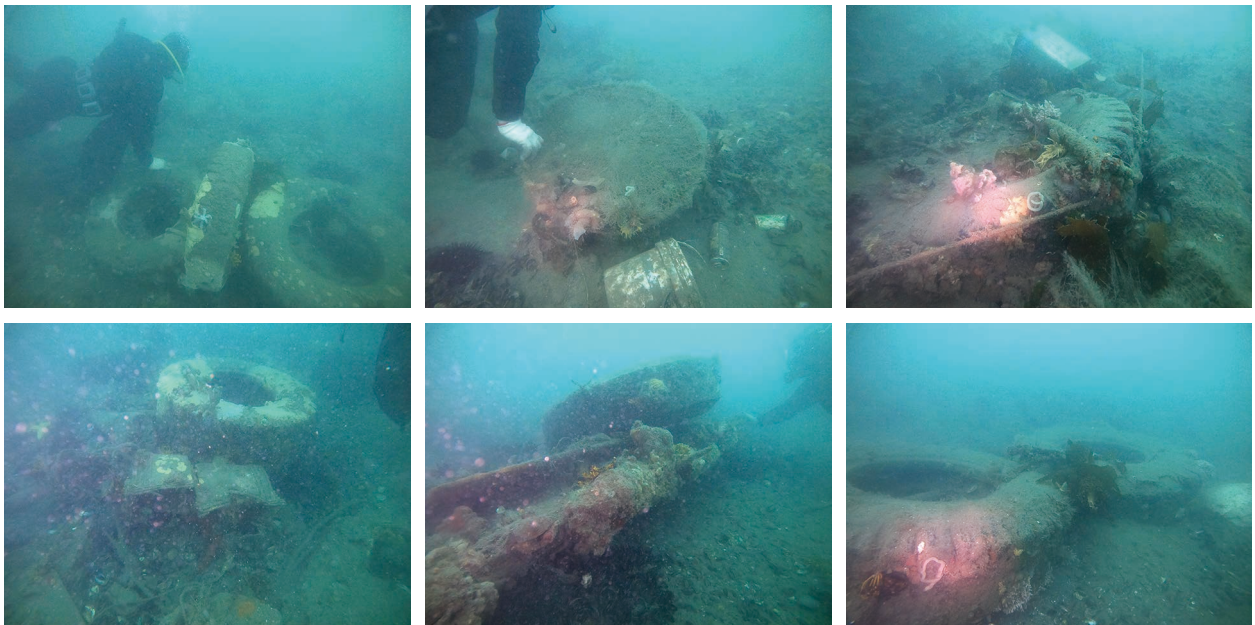
특히 영도의 경우 계류지가 있어 그곳에 타이어를 부착하는 선박들이 많아 페타이어들이 집중적으로 쌓여있다. 수심이 대략 9m 정도 되다 보니 선원이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 선박에 부착되어 있던 타이어가 물속에 침수되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



▲ 봉래항에서 건져 올린 페타이어들

이렇다 보니 수심 깊숙한 곳에는 페타이어들이 수북이 쌓여 바닷속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직접 들어가서 카메라로 촬영한 잠수대원의 눈에 비친 바닷속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전부터 페타이어들이 쌓여있는 위치를 파악한 잠수대원들은 활동 당일 시간 소요 없이 곧장 사전에 파악한 위치로 투입된다. 그리고 수중으로 페타이어들을 엮어 밖에서 대기 중인 크레인이 쓰레기를 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동안 바다 주변에서는 봉사대원들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여념이 없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 부산지부가 하루 동안 건져올린 쓰레기는 100톤 가량에 달했다.



▲ 수중에서 적재된 페타이어들을 잠수대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있다.

민관협치로 바다 살리기에 나서다

부산지부는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왔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광활한 부산 바다에 실질적인 해양정화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부산지부가 제안하여 올해부터는 시정 협치의 일환으로 부산지부,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 부산해양경찰서, 어촌계, 언론인 등 기관 및 민간단체 10명이 모여 '민관협치실행단'을 공식 출범하였다.

'민관협치실행단'은 쾌적한 부산바다를 만들기 위해 바닷속 폐기물 방치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바다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다.

‘민관협치실행단’은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모여 실질적인 해양정화에 관한 사안을 논의한다. 이번 영도 봉래항에서 진행한 100톤 쓰레기 수거도 이 사업의 일환이다.

이로 인하여 부산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확대되었고, 부산지부가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보다 넓어졌으며 잠수대원, 드론대원 등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력 등이 한층 더 확충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 한다.



▲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민관협치실행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나서다

부산지부에서는 해양환경정화 활동 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촌계, 관광객,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바다쓰레기 정화활동과 더불어 수변에서 어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사진전을 개최하여 그동안 어촌계에서 버린 쓰레기들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전시하며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부산지부의 활동상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어촌계에서 먼저 부산지부에게 해양정화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며 해양정화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부산의 바다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 사진전



▲ 2019년 부산지부 바다살리기 캠페인 현장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부산지부는 현재 송정, 광안리, 영도, 남항, 다대포, 감천, 명지 등 7개 지역에 있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해 10회 이상의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부산지부는 연간 약 9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바다 환경을 지켜나간다.

해양쓰레기는 지역별로 그 특징도 다르게 나타난다. 영도 포차거리 앞 인근 앞바다는 그곳의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 수중에서 고기가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어선이 밀집되어 있는 항포구 주변에는 폐어망, 폐통발 등이 바닷속에 침수되어 있어 바다 생명들이 그물에 걸리는 등 2차 피해를 양산해간다. 광안리, 다대포 등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에서는 플라스틱이 흘러넘쳐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등 지역별 해양오염의 특징과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부의 노력으로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탈바꿈한 지역이 있다. 2년 전 부산지부가 해양정화활동을 위해 남항에 집결했을 때 죽어있는 물고기부터 온갖 쓰레기가 덮여 있는 바다를 보며 절망감에 빠졌었다. 반드시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산지부와 남항구조대 그리고 봉사대원들이 한데 모여 수중과 수변 정화작업을 수차례 진행해왔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항은 육안으로 봐도 바다가 매우 깨끗하게 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해양정화작업을 주도해온 부산지부 박영철 사무국장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바다의 상태도 관심과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처럼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는 마음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준다면 죽어있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다시 바뀌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부산지부는 시민들의 관심과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문을 두드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지난 2019년 남항 방파제에서 부산지부 소속 대원들이 수거한 쓰레기

» 해양경찰 소식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제정, 안전한 레저환경 기반 마련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수상레저 활성화’에 대처하는 체계적 안전관리 기대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고,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수상레저 분야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2020년 12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등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번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에 공포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 소관 레저기구관리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신설 ▲레저기구의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비치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국민편의를 위한 보험 등 전산망 구축·운영 등이 신설되었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관련 법령, 제도의 정비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 소식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개편 ”

기존 법률은 면허, 교육, 사업, 안전관리, 등록 검사 등 이질적인 내용이 한개의 법률에 혼재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경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설치 의무화
- 법인이나 사용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양벌규정 도입

수상레저안전법 전면 개정

-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기상악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
- 조종면허증의 대여, 알선 행위 금지
- 수상레저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 구축·운영

YACHT



» 해양경찰 소식

해양경찰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체계 도입하여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한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운영체계를 활용한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대규모 해상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략을 도입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s), 투명 경영(Governance)

최근 기후변화 위기, 친환경선박 보급확대에 따른 연료유 다변화로 화재, 폭발을 동반한 복합적·재난적 해양환경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전문역량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난적 해상화학사고 총력 대비·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운영 전략체계를 도입하여 2019년 울산 스톨트그로이랜드호 등 과거 대형 해상화학사고를 재평가하고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8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내용은 ①전문교육 이수제 도입 등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고도화 ②복합해양사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방제협력 체계 구축 ③복합 해양재난사고 대응 전문조직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방제정책 추진으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운영체계를 활용한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으로 해양경찰의 사고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 소식

중국 불법어구 61틀 강제 철거 중

시가 약 37억원 상당 어구 전량 인양해 폐기, 어획물은 현장 방류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약 185km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61틀을 발견하고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일명 '씩쓸이 어구'로 불리는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구이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6년 우리 수역에서 범장망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정보를 우리가 중국에 통보하면 중국 정부가 단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 중인 중국 범장망은 지난 4월 18일(월) 해양경찰청이 주변 해역을 순찰하던 중 처음 발견했고, 4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주변 수역을 샅샅이 탐색하여 전체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월) 19시 중국 어선들이 야간에 어구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장에 급파하여 감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어선 4척과 계약을 맺고 21일(목) 오전부터 철거를 시작하였다. 범장망 1틀을 철거하는데 약 3~4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철거작업은 24일(일)까지 이어졌다.

3틀의 범장망을 철거한 결과, 1틀 당 약 2~3톤의 참조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총어획량은 최대 183톤(시가 약 34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 철거와 동시에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을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북위 30도 한일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3,000톤급 어업지도선을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대형바지선도 추가로 투입하였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집단행동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해경 함정과 함께 현장을 감시하였다. 아울러, 철거 완료후 정확한 불법 규모를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범장망 어구 1틀을 제작하는데 약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이번에 발견된 범장망 61틀의 가격은 약 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해양경찰 소식

해양경찰청, ‘어선 방제보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어선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 보상제도 마련, 어민 경제적 부담 경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어선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을 보상하는 ‘어선 방제보험’이 국무조정실 주관 4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선 방제보험은 어선이 화재·침몰 등 사고로 해양에 오염물질을 유출했을 때 방제조치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수협중앙회와 협업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이번 정책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어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방제조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제조치 비용보상은 수협중앙회의 ‘어선보험’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은 어선 방제비용 보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어선 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를 해양경찰의 방제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내 뉴스

한·중, 불법 어업 공동 단속체계 공고화

2022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단속 강화방안 협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28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 '2022년 한·중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임창현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중국 해경국, 중국 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 및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먼저,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적으로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무허가 조업,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방해

아울러 양국은 어획물운반선이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경유하고, 체크포인트에서의 승선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인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중 어업협정 수역 외곽 해역 중 우리 어업지도선, 해경이 주로 순시하는 해역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할 수 있는 중국 허가어선 1,300척의 허가정보, 위반정보, 입·출역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중국 측에 시스템을 통해 어선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에서 자국 어선 단속에 활용

임창현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실무회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출처: 해양수산부]

7~8월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대비 필요

슈퍼문(7월)과 백중사리(8월)로 해수면 상승 예상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은 7월 대조기*(7.14.(목)~17.(일))와 8월 백중사리**(8.12.(금)~15.(월))에 해수면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 월 중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로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
- ** 연간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여름철 고수온,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인 요인이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수로 인한 해안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연안에 조위(물높이) 관측소 33개를 설치해 조위를 측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고조정보서비스(www.khoa.go.kr/hightide)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7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팽창한 바닷물에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수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8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고수온에 보름의 영향이 더해져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7월 대조기에는 인천, 경기 안산, 충남 보령,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남 마산, 제주 등 19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8월 대조기에는 이에 더해 인천 지역의 해수면이 최대 963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안침수사태가 발생했던 인천, 경기 안산 등 7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조기 기간 중에는 조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 등을 비롯해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해양방송과 누리집 등을 통해 조위정보를 비롯한 해양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www.khoa.go.kr/Onbada : See Sea TV(8:30), 내일의 바다낚시(14:00), 내일의 해양레저(15:00)

변재영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대조기 기간에 기상 등의 영향으로 예측보다 물높이가 더 높아지거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태풍이 발생하여 대조기 기간과 겹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양과 기상상황에 대해 주의를 살피고 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 전체 화면



▲ 온바다 해양방송의 See Sea TV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 뉴스

개정 「항로표지법령」 7월 5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항로표지 종사자 안전보험 의무화 및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월 개정된 「항로표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5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을 개정하였다. 이 후 약 6개월 동안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고, 7월 5일(화)부터 개정 「항로표지법」과 하위법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 소유자는 보장금액 1.5억 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현황 등 항로표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새롭게 설치되는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통해 사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도 줄인다. 법 시행 전까지는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 또는 LED 모듈 등 항로표지 장비의 예비품과 세부 회로 부속품 등 세부 부속품의 예비품까지 보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비 예비품만 보유하여도 된다. 또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보유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 「항로표지법령」 시행으로 현장에서 항로표지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항로표지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합시다

7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포함한 10개 어종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포함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7월에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갈치는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조기 역시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1개월 동안(단, 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흥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일)부터 8월 25일(목)까지(단, 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누리집(www.수산자원보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잡을 수 없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의 어린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참조기 역시 전장 길이 15cm 이하의 금지체장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 갈치의 항문장 : 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로서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 7월 금어기 대상어종 포획금지규정

[출처: 해양수산부]

협회교육안내

2022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2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협회교육안내

2022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22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육비 : 요원 22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2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2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2년 『해양안전지도사』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2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해양안전·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2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시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생존수영 및 사고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 수행

| 2022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대 상 : 2급 - 만 16세 이상, 사전평가(자유형/평영 각50m, 잠영10m) 합격자
1급 - 2급 자격증 보유자 중 동 교육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2급 20만원 / 1급 2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전날 까지 100% 환불 (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생존수영지도(12시간)
 - 응급처치지도(4시간)
 - 생존수영이해(8시간)
 - 교수법(8시간)

- 자격명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생존수영지도사(2020-005567)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이마트 마일리지 활용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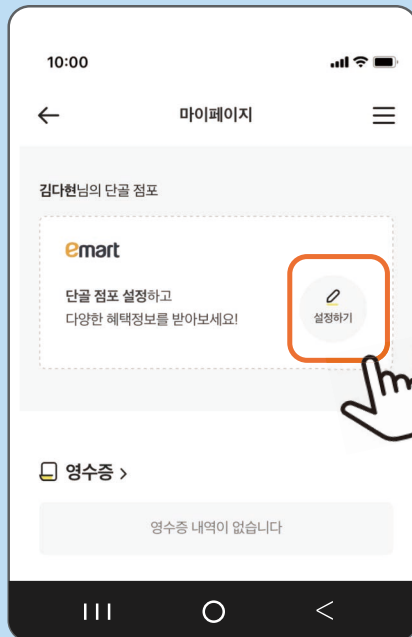
쇼핑한 금액의 0.5%를 이마트에서 적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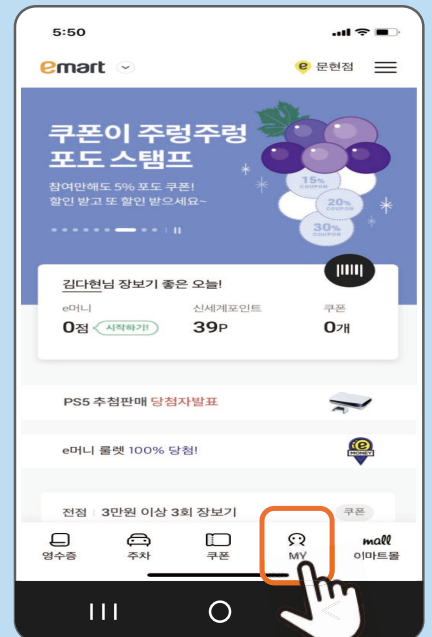
적립된 기금은 바다 안전을 지키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처우개선과 안전확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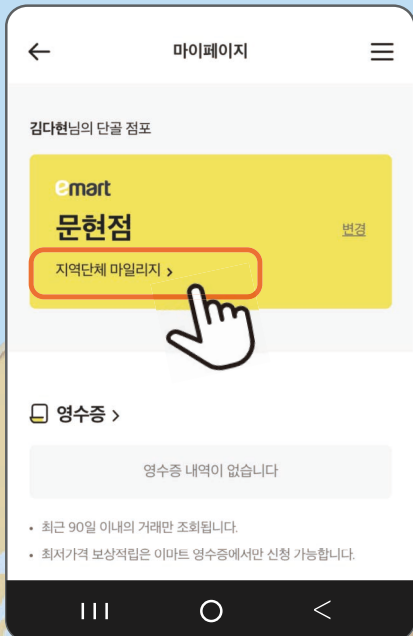
1 이마트 어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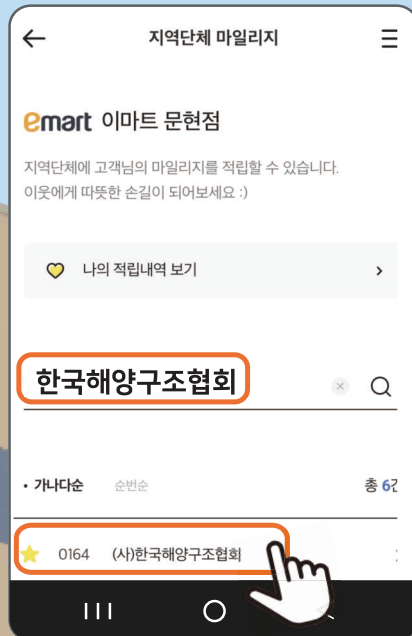
2 회원가입 후 단골점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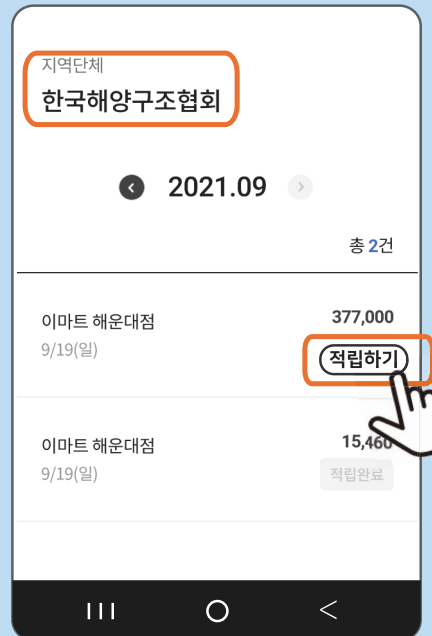
3 앱 화면 하단 my 클릭



4 지역단체마일리지 클릭



5 한국해양구조협회 검색
즐거찾기 설정 후 클릭하기



6 적립하기 클릭
(개별포인트 적립과 별도로 기부됩니다)

어플이 없는 경우 종이영수증을 가지고 '고객만족센터' 방문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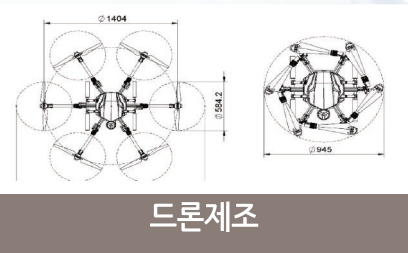
(주)경기항공



드론촬영



드론방제



드론제조



드론국가자격증교육



정비사
촬영사
계기비행
방제사
VTOL

드론민간자격과정



홈페이지 <http://kgf.creatorlink.net> | <http://kgfdrone.cafe24.com>

본 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76, 동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302호
Tel. 031-576-0801

비 행 장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353-81

지 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남진해,
여주, 전남, 강원, 김해, 양산, 순천

